



KIA日 전훈캠프를 가다

미야자키=김여울 기자



2008 시즌 인방실력을 맡을 KIA 포수들의 주전 경쟁이 치열하다. 왼쪽부터 현승민, 김상훈, 차일목이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안방 주인은 바로 나”

김상훈·차일목·송산·현승민 포수 주전경쟁

“실력으로 승부”...실전같은 훈련에 ‘구슬땀’

KIA의 전지훈련이 진행되는 미야자키 오후라가하 구장의 아침은 ‘안방마님’들의 등장으로 시작된다.

다른 선수들보다 더 큰 가방을 메고 가장 먼저 경기장을 밟는 이들은 KIA의 포수 김상훈(31)·차일목(27)·송산(26) 그리고 현승민(22)이다.

이들은 오전 8시40분 가장 먼저 숙소를 나서 배팅을 한 뒤 뒤늦게 도착하는 본진 선수들과 합류해 본격적인 훈련을 시작한다.

타격과 수비훈련에 이어 시뮬레이션 훈련까지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땀이 없다.

다른 선수들이 뛰는 경기에 잠시 편칭이라도 부리고 있으며 이내 “방금 투수가 던진 공이 뭐냐?”는 조범현 감독의 매서운 목소리가 날아든다. 선수 간의 경쟁을 통해 실력향상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주전 자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젊은 투수가 많은 KIA 입장에서 는

속한 노련미로 경기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포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포수 조련사’로 이름 난 조범현 감독에게 KIA의 팬들이 거는 기대가 높다.

포수 출신인 조 감독은 SK의 박경완과 삼성의 진갑용을 키워냈다.

꼼꼼한 데이터 야구로 유명한 조 감독의 영향으로 박경완은 오밀조밀 치밀한 플레이로 SK의 첫 우승을 리드했고, 진갑용은 삼성 2연패를 이끈 주역이다.

KIA의 안방 터줏대감은 9년차의 베테랑 김상훈이다.

지난 2000년 프로에 데뷔한 이후 줄곧 안방을 맡아 활약했지만 다른 팀 주전 포수에 비해 단조로운 투수 리드로 아쉬움을 남겼다.

조범현 감독이 ‘V10’을 향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선수 중 하나가 김상훈이다. 지난해 조 감독은 배터리 코치로 있으면서 체중감량과 하체 강화를 강조했다. 이후 몸집이 민첩해졌고, 후반기에는 타격도 살아났다.

무엇보다 데이터 야구를 통해 연구하는 습관을 강조하면서 리드도 좋아졌다는 평가다.

현재 올 시즌 주전 포수는 김상훈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조 감독은 “많이 발전했지만 더 연구하고 발전할 필요가 있다”며 “대표팀으로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지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 걱정이다”고 밝혔다.

김상훈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안방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차일목·송산의 경쟁은 그만큼 치열해질 전망이다.

차일목의 경기운영 능력과 송산의 공격력이 만나다면 이상적인 포수 조합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두 선수의 성장과 스타일이 확연하게 다르다. 두 선수에게 주어진 과제가 다를 수 밖에 없다.

기존의 경쟁구도에서 새로 KIA유니폼을 입은 현승민도 가세했다. 지난해 삼성에서 방출됐던 프로 2년차 현승민은 입단 테스트에서 송구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직 1군 진입을 장담할 수 없지만 구사일생으로 재도약의 기회를 얻어 의지가 남다르다.

미야자키에서 안방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4인방의 2008시즌 운곽은 17일부터 진행되는 자체 청백전을 시작으로 점차 드러날 전망이다.

/wool@kwangju.co.kr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가 창단을 추진중인 프로야구 제8구단의 선수들이 14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강창학 야구장에서 전지훈련에 돌입해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센테니얼 “다시 시작하자”

제주서 스프링 캠프 돌입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가 주도하는 프로야구 제8구단이 첫 훈련을 치르고 2008 시즌을 향해 뜻을 합치게 올랐다.

이광환 신생구단 감독 내정자는 14일 오후 1시30분 제주도 서귀포시 강창동에 자리 잡은 강창학 공원 내 야구박물관 영사실에서 이날 제주에 내려온 전 현대 선수들과 상견례를 하고 “눈치 보지 말고 과감한 야구를 펼쳐라”고 역설했다.

지난달 30일 신생구단 초대 사령탑으로 선임됐지만 선수들과 센테니얼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탓에 이날에서야 비로소 선

수들과 얼굴을 맞댄 이 감독은 “해외에 나가지 못하고 스프링캠프를 국내에서 치르게 돼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우리가 잘해야 9, 10 구단도 창단할 수 있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 감독을 비롯해 강병철 2군 감독, 이순철 1군 수석, 윤학길 투수, 장재근 배터리 코치 등 신임 코치 5명과 현대에서 그대로 옮긴 김응국 1군 타격, 정명원·조규제 2군 투수 코치 등 1.2군 코칭스태프 13명도 일일이 선수들과 악수하고 뜻을 모아 좋은 성적을 내자고 다짐했다.

15분간 상견례를 마친 뒤 선수들은 곧바로 야구장으로 이동, 공식적인 첫 훈련을 시작했다.

“내주 초 새 스폰서 발표”

박준근 단장 밝혀

프로야구 제8구단 창단에 나선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가 다음 주 초 새로운 메인 스폰서를 발표한다.

박준근 센테니얼 단장은 14일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열린 프로야구 단장회

“신지애·이지영 을 LPGA 복병”

신지애 “우승 자신있다”

美 ESPN 보도

신지애(20)와 이지영(23·이상 하이마트)이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에서 올해의 선수 자리를 위협할 정도의 활약을 펼칠 것으로 미국 골프 전문가들이 예상했다.

ESPN은 14일 LPGA 투어 시즌 개막 전인 SBS오픈 개막을 하루 앞두고 전문가 4명에게 올 시즌 전망을 물었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올해의 선수상 부문의 복병으로 신지애와 이지영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ESPN 골프에디터인 제이슨 소벨은 신지애를 다크호스로 주목하며 “LPGA 경험은 많지 않지만 두 개 정도의 메이



<신지애>

<이지영>

켄스탐(스웨덴)이 2표, 플라 크리머와 크리스티 커(이상 미국)가 한 표씩을 얻었다.

올해의 재기 선수로는 위성미(19·미국이름 미셀 위), 카리 웹(호주), 미야자토 아이(일본), 소렌스탐이 골고루 지목 받았다. 주목할 신인으로는 청아니(대만)가 세 표를 얻어 시즌 개막 전부터 유력한 신인왕 후보로 떠올랐다.

한편 신지애는 LPGA 첫 우승 사냥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15일부터 시작되는 LPGA 시즌 개막 전인 SBS오픈 출전을 위해 미국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신지애는 14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LPGA에서 우승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다. 지난 해 US오픈에서 6위, 에비앙 마스터스에서 3위를 했는데 우승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저 대회에서 우승을 놓고 다름없는 실력을 갖춘 선수”라고 소개했다. 또 골프월드의 톤 시락은 “지난 해 네 번의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상위권에 들었다”면서 이지영의 돌풍 가능성을 점쳤다.

네 명의 전문가들은 올해의 선수로는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만장일치로 꼽았고 오초아를 제외하고는 안니카 소

중국 1·2위 휩쓸어

ISU 4대륙 피겨선수권 페어

중국 피겨스케이팅 페어의 ‘쌍두마차’ 톤지안-광칭 조와 장하오-장단 조가 200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 1, 2위를 휩쓸었다.

톤지안-광칭 조는 14일 오후 8시 개막식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에서 119.63점을 얻어 쇼트프로그래밍(67.70점)을 합쳐 총점 187.33점으로 역대 우승에 성공했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장하오-장단 조에 밀려 2위를 달리던 톤지안-광칭 조는 ‘로미오와 줄리엣’ 사운드의 애절한 음악에 맞춰 연기 초반 깔끔한 세 차례의 점프를 실수 없이 소화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은반 위의 청혼’으로 유명세를 탄 존 볼드윈-레나 이노우에(미국) 조는 총점 156.00점으로 전날보다 한 계단 떨어진 4위를 차지했다.

앞서 열린 아이스댄싱 오리지널 댄스에서는 전날 컴벌서리 댄스에서 1위를 차지했던 스콧 모이어-테사 버튜(캐나다) 조가 65.02점으로 또 한번 정상에 올라 총점 103.24점으로 선두를 이어 나갔다.

아이스댄싱 우승팀은 15일 프리스케이팅(오후 3시55분·SBS 생중계) 결과를 통해 결정된다.



14일 경기도 고양시 어울리누리 얼음마루에서 열린 ‘2008 세계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남녀 페어 프리스케이팅에서 미국의 브룩 캐스틸과 벤자민 오콜스키가 아름다운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 편파관정 정면 돌파

한국 남자핸들볼 대표팀 亞선수권 참가자 출국

‘편파관정 온상인 중동에서 편파관정을 넘어선다’

지난달 일본과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예선 재경기에서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올림픽 본선행을 확정지은 남자 핸드볼대표팀 이번에는 편파관정에 정면으로 맞섰다.

김태훈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7일부터 이란 이스파한에서 열리는 제13회 아시아남자선수권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14일 출국했다.

이번 대표팀은 윤경신(함부르크)과 조치효(바링겐), 한경태(오트마) 등 유럽파 3명이 빠졌지만 전력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

일본과 백원철과 이재우(이상 다이오스 팀)가 공격을 주도하고, 물오른 ‘철벽수비’를 자랑하는 수문장 김일구(인천도시개발공사)가 골문을 든든히 지킨다.

총 10개 팀이 출전한 이번 대회는 5개 팀씩 두 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 2위 팀이 준결승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은 일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B조에 속했다.

아시아핸들볼연맹(AHF)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내년 크로아티아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 3장이 걸려 있었지

골프·윈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룩펠리 회원권

골프장	시세/인원	골프장	시세/인원
관주	3,500	승인	1,700
남관주	4,400	골드	1,900
클럽900	6,400	도	2,100

성원 문의 (062)351-0095